클래식 스타들이 전하는 '위로'

광주문예회관 '박수를 보내다'
13일 첼리스트 김민지
8월 21일 피아니스트 원재연
9월 6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12월 22일 재즈보컬 나윤선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독주회 시리즈'가 오는 13일 첼리스트 김민지의 무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1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전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낸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광주 시민과 아티스트 그리고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애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시간을 마련했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은 첼리스트 김민지, 피아니스트 원재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재즈보컬 나윤선 등을 초청해 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독주회 시리즈'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첫 무대에는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열린다.

현재 서울대학교 기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 씨는 어빙 클라인 현악 콩쿠르를 비롯한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으며, 로린 마젤이 이끄는 스페인 소피아 오케스트라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부수석을 역임했다. 김 씨는 이날 쇼팽 '화려한 폴로네이즈', 프로코피예브 '첼로 소나타',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등을 들려준다.

특히 이날 무대에는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가 함께 올라 눈길을 끈다. 일리야 라쉬코프스키는 롱 티보 크레스팽 2위, 아서 루빈스타인 3위, 퀸 엘리자베스 4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티켓가격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며, 현재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으로부터 '제일 높은 피아니스틱 프로페셔널리즘에 다다르는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극찬을 들은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8월 광주에 온다.

오는 8월21일 무대에 서는 원 씨는 이번 독주회에서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을 통해 낭만주의의 예술성을 선사한다. 슈만 '숲의 정경', '환상곡 C장조', 브람스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을 들려준다.

원재연은 알프레드 브렌델,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의 피아니스트를 배출한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2017)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을 함께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7월 중순 티켓예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오는 9월6일 관람객을 만난다. 지난 3월 앨범 '현의 유전학'을 발매한 그는 이날 무대에서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Op. 64',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라벨 '치간느', 이자이 '바이올린 소나타 6번', 스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 내림마장조 Op. 18' 등을 연주한다.

양씨는 2008년 이후 우승자 없이 2, 3위만을 선정하던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9년 만에 탄생한 1위인 동시에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 작품 최고연주상, 청중상 등 3개의 특별상을 휩쓸며 화제가 됐다. 8월 초 오픈하는 티켓 가격은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이다.

'박수를 보내다' 마지막 공연은 대한민국을 넘어 유럽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나윤선이 장식한다. 재즈보컬 나윤선은 오는 12월 22일 무대에 선다. 한국 보컬 최초로 프랑스 '오피시에(Officier)' 수훈과 독일 '에코 재즈 어워드'를 수상한 나 씨는 2014년에는 소치 올림픽 폐막식에서 '아리랑'을 불러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레퍼토리는 미정이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역 종합문예지 문학들 '여름호' 나와

2010년대 한국 시·소설 성찰
2020년대 문학 나아갈 길 가늠

지역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 여름호(통권 64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지난 2010년대 한국시와 한국소설을 성찰하고 2020년대 한국 문학의 향방을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종원 평론가는 '우리가 덜 읽어 냈던 과거가'라는 글에서 그동안 간과해온 황인찬, 김현, 백은선, 신용목의 시의 지점과 그들이 성취한 2010년대 한국시의 성과 속에서 2020년대 한국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는 이들의 작품이 2020년대 한국시에 보이지 않는 미적 영향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본다.

선우은실 평론가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 말할 때 필요한 것'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주목한다. 그는 "여러 기사와 리뷰 등의 반응을 참조해 볼 때 많은 이들이 이 서사를 반긴 이뉴는 그것이 '또 다른 김지영으로서의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글에 공감한 이들에게 자신은 '김지영'의 과거이자, 자신의 미래로서 '김지영'을 가늠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성을 확보 부여한다"고 평한다.

'비평'란은 김영삼 평론가의 '소수자-퀴어-청년이 역사와 만나는 방식'을 게재했다. 김 평론가는 한정현의 '코코와 쿄지'와 서이제의 '#바보상자스타'를 주목하며 이들의 작품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짜임새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의 새로운 양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특히 이번 호에는 2021년 5·18문학상 수상작인 시 부문 '야생화'(손용탁), 소설 부문 '수족관엔 미늘이 없다'(김희호), 동화 부문 '한별이가 살던 집'(조연희)과 '완벽한 탐정'(정민영)의 작품과 심사평도 수록돼 있다.

이밖에 김황흠, 백애송, 이형권, 전동균, 정양주, 조성국 시인 등의 시와 은미희 작가의 소설 등이 실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말이 되는 삶, 삶이 되는 말은?

강원국 '어른답게 말합니다' 펴내
품격있는 삶 위한 73가지 말공부

"말하기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듣기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말하기는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일이다. 그만큼 말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을 역임했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말하기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소통보다는 오히려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더욱 품격이 있는 '어른답게' 말하기는 어렵다.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작가인 강원국이 최근 펴낸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웅진지식하우스)는 '말이 되는 삶, 삶이 되는 말'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 회장과 두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쓰고 고치는 일을 해왔던 작가는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번 책은 품격 있는 삶을 위한 73가지의 말공부를 담고 있다.

사실 말은 자신다움을 드러내는 방편이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어른다운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말이 칼이 될 수도 있음을, 더욱이 그 칼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엄정한 진리를 잊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이 든다고 저절로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말 또한 끊임없이 가꾸고 배울 때 비로소 품격을 갖추게 된다.

저자는 "말을 잘하고 싶은 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아무리 의미 있고 필요가 분명해도 즐겁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내가 말하기를 통해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성장의 기쁨"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어디서도 말 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누구나 말은 하지만, 다들 잘 말하며 살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책에는 말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비롯해 쓸데 없는 오해를 피하는 대화법, 유용한 전략적 말하기와 보고법, 소심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법 등 실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담겨 있다.

더불어 저자는 진짜 어른다움의 완성은 말 속에 있다고 강조한다. 혹여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그리고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배울 점이 있어야 한다', '징징대고 어리광부리지 않는다', '나답게 말한다' 등 아포리즘 같은 경구는 새겨들을 만하다.

한편 강원국 작가는 그동안 '강원국의 글쓰기', '나는 말하듯이 쓴다' 등을 펴냈으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른 음악 다양성 보여 드릴게요

김홍박 리사이틀 '컬러스'
1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2018년 단독 리사이틀 '로맨틱 호른'에서 낭만음악 레퍼토리에 집중했던 김홍박〈사진〉이 이번엔 새로운 구성의 프로그램을 들고 돌아왔다. 김홍박 호른 리사이틀 '컬러스'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컬러스(Colors)'라는 부제에 걸맞게 반가운 이번 독주무대의 주안점은 바로 '다양성'이다. 금관악기 호른으로 표현가능한 테크닉적인 다양성, 낭만적인 작품 이외에도 여러 색깔의 감정선을 담은 호른 음악의 형식적인 다양성과 정서적인 다양성까지, 우리가 언뜻 알고 있던 '호른'이라는 악기에 대한 관점을 한층 넓히며 호른이 지닌 다채로운 면모들을 무대 위에 선보일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드레제케의 '로만체', 외겐 보자의 '정상에서', 키르히너의 '세 개의 시', 잔느 비녜리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7', 슈트라우스의 '고별', 파울 힌데미트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바장조' 등이다.

한편, 호르니스트 김홍박은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후 베를린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정명훈 음악감독에 의해 발탁돼 2007년부터 10년까지 서울시향의 호른 부수석으로 활동했다. 이후 런던심포니, 예테보리 심포니,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요미우리 니폰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이자 솔리스트로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반 3만원. 문의 02-338-381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